

뉴욕 한인 추석맞이 민속대잔치 축하 메시지

친애하는 미주지역 동포 여러분,

올해로 스물한번째를 맞는 뉴욕 한인 추석맞이 민속대잔치와 모국 농특산물 박람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국 땅에서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민족의 풍속을 즐기고 선보이는 행사를 스무 해 넘게 지속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지켜 나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조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도 함께 연다니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 오신 뉴욕한인청과협회의 노고에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생활양식도 다른 곳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동포들은 특유의 근면함과 창의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일구어 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지난해 월드컵 대회 등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일처럼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어

려운 여건을 도약의 기회로 바꾸면서 한민족 한마음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은 국가 발전의 큰 힘인 동시에 저와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과 통합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랑스런 조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국을 떠올리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미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동포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즐겁고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발전을 거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